

예수는 부활의 주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25-26,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1.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교리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의 교리가 일치하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밤낮을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부활하셨고, 40 일간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며, 주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그분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몇몇 구절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 시대의 사람이었던 욥은 고통 중에 자신이 죽더라도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19:25-26]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비록 자신의 육체가 썩어져 있어도 새로운 육체를 받아 그 새로운 육체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이 땅위에 서실 왕중의 왕 주님을 보게 될 비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종말의 시기에 사람들의 혼이 부활하되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자들은 영원한 치욕의 심판을 받을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판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주 예수님과 사도들이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확실히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12:1-3]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2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3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확실한 비전과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그분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죽이기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을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비전과 신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믿는 신학자들도 그들의 견해가 제 각각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전도하고 가르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에 관하여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원했습니다.

- 첫째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 둘째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 셋째로, 자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부활의 주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신 예수님

어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책잡을 불순한 목적으로 부활에 관한 가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마다 상속자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한 가족에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차례로 아내로 삼은 후에 죽게 되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27-38]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러므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30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31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일곱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32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36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37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 주었나니, 38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이 질문이 비록 좋지 않은 동기로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의 하늘 왕국에서의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왕국의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생에서 사람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후사를 남기기 위한

것인데, 영원한 하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동등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므로 후사를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혼들은 혼인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생에서 부부이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면 서로가 부부이었다는 기억도 잃게 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토록 함께 지니고 살 것이지만 이생에서의 가족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상세한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늘 왕국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로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늘 왕국내의 관계를 다른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늘 왕국의 시민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동으로 섬기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 왕국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부활하여 살아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이 세분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미 부활하여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지만, 2 천년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이 세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형으로 부활하여 하늘 왕국에 살고 있는 이 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부활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부활은 종말 시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날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단단히 부활에 대한 교리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 천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부활에 관하여 확실히 알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3.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사람을 세번이나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생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 나중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역할을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함으로써 한 것입니다.

- 첫번째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치르러 가는 관 속에서 살려 내셨습니다 [누가 7:11-16].
- 두번째로, 회당장 아이로의 12 세된 딸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 내셨습니다 [누가 8:49-56; 마태 9:18-26; 마가 5:21-43].
- 세번째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사망후 나흘째 되는 날에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요한 11: 1-44].

이 세사람을 살려 내신 것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부활의 주이심을 미리 보여 주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도와 주신 것입니다. 특히 세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예수님의 명성이 매우 크게 번지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를 죽이고자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이 음모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 [Bethabara]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심으로 그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 사역의 관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비록 베다라바가 베다니에서 2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었지만, 만일 주님께서 즉시 그곳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셨더라면 하루 정도의 여행 후에 도착하셨을 것이고 충분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멀리 있는 나사로의 병이 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므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일부러 베다바라에서 이틀을 더 유숙하고 나서야 베다니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마치 나сар가 죽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사고로 잃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재난으로 집이나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이나 경찰 근무나 소방관 근무중에 잃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러한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갖고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병들고 죽어서 나흘간 무덤 가운데에서 육체가 썩어가는 참으로 비참한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서 부활의 주이심을 널리 알리는데 유용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경험은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동생의 병과 죽음을 통해 가슴 아픈 경험을 했지만, 그의 부활을 보고 주 예수님이 부활의 주이심을 확신하고, 자신들의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하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5-26]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므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부활하여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4.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가 둔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나중에 빈 무덤을 확인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오심으로써 그분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활의 사실성을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4-8]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5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중의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7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8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왕국에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첫째,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은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감동과 격려와 믿음의 확신을 받고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커다란 기쁨과 신앙의 확증을 주면서 복음 사역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함으로써 1 세기에서 3 세기에 걸쳐 복음은 로마 제국에 크게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도 죽음 후에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사후의 영원한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19-22]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셋째로, 주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왕국에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12-13]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5.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주님 [2 편에 계속]